

내 마음 가운데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어!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내가 지금 현재 태어나서 내가 그걸 안다면 바로 지금 태초며 지금이 시작인 겁니다. 지금 모두가 생한 거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생한 걸 지금 알았으니까, 안 것이 뭐나 하면 억겁 전년부터 내가 진화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억겁 전년이 일 초도 될 수 있으니까 말합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억겁이라는 말, 언어도 불지 않는 자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그 문제가, 무전자의 그 삼각원형을 이룬 자체가 바로 그 후에 참, 마음들의 그 빛을 내게 되었죠. 마음들의 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고는 지금 전기가 발전이 될 수도 없고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 전기가 들어올 수도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삼각원형에 의해서 순환하고 그렇게 이들을 지었죠. 그 삼각원형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로 태양도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태양은 언제, 북두칠성이 생기기 전에 생겼느냐. 아닙니다. 별성이, 그렇게 많은 별성이 생기고 참, 질서를 유지하고 다 그런 뒤에야 태양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달듯이 말합니다. 촛불을 켜다가 전기 달듯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발전은 누가 했느냐. 그 유전자가 광대무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악한 것은 악한 데 쓰이는 칼이 될 것이고, 즉 말하자면 유전자의 그 진화력을 아주 못되게 쓰는 악령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부풀려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좋게 발전이 돼서, 유전자로 인해서 유체를 순화시키는 데는 무엇이든 아랑곳없이 무전자의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그 계도를 올바르게 들면서 생명체든지 생명체가 아니든지 남을 이익하게, 즉 말하자면 유체든지 무체든지 다 이익하게 이끌어가지고 하면서 집단을 이뤄왔다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대동령이라고 할까요, 또 집단을 이끌어가지고

똥이는 여기저기 병이 들고, 파위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해서 집이 망가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 우주에 관한 문제들이 다 그러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소는 무엇을 뜻하느냐. 어떠한 한 특성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왜 목성이라고 하고 토성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대로 이름을 붙여도 그렇게 묘하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통해서 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토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는 목성이라고 그렇게 붙였고, 아주 하나하나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해성은 해성대로 어쩌면 그렇게, 수성은 수성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화성은 화성대로 이름을 똑똑히 그렇게 잘 붙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의 이름이 그게 그대로 겉벌로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그걸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성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김씨 문종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씨이듯이.

그런데 또 화성 같은 데는 만물상은 만물상인데 무체 만물상! 허허허허, 지구에 물질이 다 있

두고 호소를 하고 마음을 거기가 두었다면 내 혼이 거기도 있고... 내가 이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내가 어디에다가 집착을 하고 있으면 집착한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그냥, 그저 그 혼은 열 개도 됐다 백 개도 됐다 만 개도 됐다 천 개도 됐다 하나도 됐다 하면서 이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운 사람들은 알아서 고정되게 두지를 않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정되게 거기가 아예 착을 단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도 끼우지도 못하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업보라고 하고 그런 윤회의 곁길에 걸려서 세세생생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 들어가죠. 생활에서도 많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단을 이룬 그것을 누가 모아놨습니까? 그 한동네에서 모아놨단 말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높은 유전자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차원이 낮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가 뭐를 안 갖다 놓으면 동네가 모두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릇을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갖다 놔서 해결이 됐다면, 나중에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큰 걸 갖다 놓다가 안됐으면 그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놔야 하고, 이 지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생긴 거지 사람이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었습니까?

그래, 나중에 그 동네에 가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하기 때문에 그 미신이 있는 거지, 당신네들이 미신짓을 안 한다면 미신은 없을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그냥 아예 팽개쳐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뒷산에 만들어놓으라고 그러다."고 그러합니다. 그래도 딱도 해놓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걸 아주 씩 없애버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가 잘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편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내 마음 가운데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모든 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한 주인공에 있는 거지 어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만 두고요, 요다음에 그 유전자 수없이 확산시키고 그렇게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런 문제를 또 토론을 하십시오.

* 위 법문은 1985년 11월 17일 법행제법회에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 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신 노릇을 하기에 미신이 생긴 거지

미신 노릇을 안 한다면 어찌 미신이 있겠는가

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습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수많은 그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비유해서 보겠어요. 왜 세균이 나쁜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우리 인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생명체들이, 지금 세균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름을 세균이라 하지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분신인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타의에서 유전자가 들어왔다면 세균입니다. 자의에 있는 생명은 세균이 아닙니다. 나를 나쁘게,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세균이지 인체를 이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잘못 돌아가면, 이 후성의 사장이, 여러분이 다 후성의 사장입니다. 사장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이 인체의 유전자, 즉 말하자면 인체에 있는 생명들의 유전자들이 다 겉으로 노는 거예요. 그 사장이 잘못 생각하는 대로 파위를 일으키고 분단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타의에서 세균이 침입을 해서 들어올 때 막아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몸

듯이 유전자가 살 수 있는 그 화성이라는 만물상!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연결해서 서로서로 보급이 되고, 서로서로 교류가 되고, 우리가 질적으로 낮은 거 높은 거를 끌라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만물상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또렷 또렷하게요, 이 세상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같이 이렇게만 사느냐? 여기만 생명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요것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비참하고 그러니까 산골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있으면서 참, 자기의 그 애집하고 괴롭고 그런 것을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어서 그 돌에 했습니다. 항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구든지 아쉬움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빌었습니다. 마음으로 호소하고 빌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가만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들이, 자꾸 거기가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거기 집중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 전체가 한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혼백이 말입니다. 하나나 하면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게 마음을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의 修辭
8. 상담 &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장: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랑한의원 윤랑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랑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간(肝) 이
간지방화
간경화
간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과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과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신미를 토종 (민속농원)